

GIA 모델에 근거한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임영숙¹, 이영주¹, 한숙정^{2*}

¹삼육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²삼육대학교 간호학과

Research on factors affecting the smartphone addiction of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GIA

Young-sook Lim¹, Young-joo Lee¹, Suk-jung Han^{2*}

¹Dept. of nursing, Graduate School, Sahmyook University

²Dep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GIA 모델에 근거하여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외로움,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기전 및 스마트폰 사용 기대가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서울 소재 일개 대학교 대학생 224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설문조사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고, 자료 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스마트폰 중독 평균 점수는 $2.5 \pm 0.8(1.2-4.9)$ 이었으며, 125(55%), 90(40.2%), 9(4%)의 학생들이 정상, 위험, 중독군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외로움과 스트레스, 스마트폰 사용 기대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아 존중감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외로움, 스트레스, 스마트폰 사용 기대, 자아 존중감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이러한 영향 요인들을 조절하고 자아 존중감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GIA 모델을 근거로 스마트폰 중독 영향요인을 파악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GIA 모델의 연구 적용 및 활용성을 제시하는데 기여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which attempt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self-efficacy, self-esteem, loneliness, stress, stress coping, and use expectancy on the smartphone addiction of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the GIA model. Data was accumulated by means of questionnaire surveys from December 2015 to January 2016, which targeted 224 college students attending universities within Seoul and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1.0. The average smartphone addiction score was $2.5 \pm 0.8(1.2-4.9)$ and 125 students were in the normal category (55%), 90 in the danger category (40.2%), and 9 in the addiction category (4%). The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loneliness and stress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use expectancy, while self-esteem had a negative correlation. Loneliness, stress, use expectancy, and self-esteem proved to be the major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addiction and it was concluded that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rograms which strengthen self-esteem are necessary. This study contributed to the research application and availability of the GIA model by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addiction based on the GIA model.

Keywords : addiction, cell phone, coping, efficacy, esteem, loneliness, stress

본 논문은 2015학년도 삼육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Corresponding Author : Suk-jung Han(Sahmyook Univ.)

Tel: +82-2-3399-1591 email: hansj@syu.ac.kr

Received April 5, 2016

Revised (1st May 3, 2016, 2nd May 10, 2016)

Accepted May 12, 2016

Published May 31, 201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새로운 의사소통 매체로 급부상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전화나 문자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디지털 기능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고정된 특정 장소에서의 이용한계를 벗어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정보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생활이 가능해졌다[1,2]. 그러나 간편하게 터치 한번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에 접속이 가능하고 휴대가 간편하여 접근성 증대를 통한 중독 가능성이 있으며[3] 빠른 속도로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선호하는 콘텐츠 내용별로 중독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정보화 진흥원[4]에 따르면 20대 스마트폰 중독률이 19.6%로 다른 성인연령대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높았으며, 그중에서 대학생은 20.5%로 스마트폰 중독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시기는 아동기 후기나 사춘기에 발달되기 시작한 삶의 의미가 확립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부모로부터 신체적, 정신적으로 독립하여 자아실현과 인격성숙을 위해 노력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새로운 문화와 인간관계 등에 대한 적응과정, 학업과 장래에 대한 대비, 미래의 불확실성, 부모로부터의 독립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독특한 대학문화라는 공간 안에서 대인 관계 및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5]. 일부 대학생은 입학이후 대학에 대한 환상과 기대가 무너지고, 적성과는 상관없는 학과 선택,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대인관계, 심각한 취업난 등으로 허무감,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이로 인해 야기된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겪음으로 게임과 인터넷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사회에서 고립되어 버리는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1,6].

Mullins, Tucker & Longino [7]는 고독감을 개인이 지각하는 주변 사람들과의 멀어짐 혹은 개인이 주변의 사회적 환경 및 상황으로부터 멀어지는 정서적인 경험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이 중독경향이 높으며, 특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일수록 인터넷 사용에서 중독적 성향을 보인다[8].

자기효능감은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개인의 자신감으로 자신이 가치를 두고 선택한 활동을 수행

하는 것이다[9]. Ryu [10]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스마트폰 중독의 예측변인으로 작용함이 밝혀졌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휴대폰중독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적 측면의 하나로, 자신이 가치가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하다고 믿는 정도를[11]말한다. Young & Rogers[12]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가상 세계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자존감의 욕구를 채운다고 하였다.

Lazarus & Folkman[13]은 심리적 스트레스는 개인의 안녕상태를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간의 특정한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대학생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가정할 수 있다[14,30].

대처란 개인의 능력을 초과하고 부담스럽다고 평가되는 특정한 내·외적 요구를 조절하기 위한 인지적·행동적 노력이다. 늘 만나는 문제 상황에 어떻게 기술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13].

사용기대는 사용경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기대로 사람들의 신념 또는 결과 기대는 개인의 행동을 예언하는데 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15].

Generalized Internet Addiction(GIA) 모델은 Davis[16]에 의해 소개된 이론적 인지-행동 모델로 실생활, 사회적 고립, 외로움, 사회적 지원 부족 등 부정적이고 부적응적 인지들이 중독의 주요요인이라고 하였다. Brand, Young & Laier [17]는 기본 가정을 포함한 GIA 모델을 조작화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모델은 일상생활에서 주관적 불만이나 다양한 성격특성이 인터넷 중독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중독치료를 위한 대처전략의 중재역할과 치료 및 강화할 인지기능들을 밝히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Trotzke, Starcke, Müller & Brand 등[18]이 GIA 모델 기반 실험조사에서 병적인 온라인 구매와 특정 인터넷 중독과의 유사점이 있음을 밝혀내는 등 국외에서는 GIA 모델을 이용하여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기능들과 매개변수들을 파악하고 중독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연구들[19,20,21,22]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GIA 모델을 이용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매체적 특성과 사용자의 이용양상 등에서 인터넷 중독과 휴대전화 중독 간에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지기능들을

살펴보고 중독 치료를 위한 중재 및 전략 마련을 위해 GIA 모델을 스마트폰 중독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및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라 분류된 정상군과 위험군의 측정변수를 비교한다.
- 측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1.3 개념적 기틀

본 연구는 Brand, Young & Laier [17]의 GIA 모델을 근거로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GIA 모델은 핵심특성 측면, 구체적 인식 측면, 인터넷 중독 증상의 3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특성 측면은 우울, 사회불안,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외로움, 사회적지지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 인식 측면은 적절한 대처기전, 인터넷 사용기대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특성 측면으로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외로움, 스트레스를 구성하였고 구체적 인식 측면으로 스트레스 대처기전, 스마트폰 사용기대를 구성하여 스마트폰 중독증상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하였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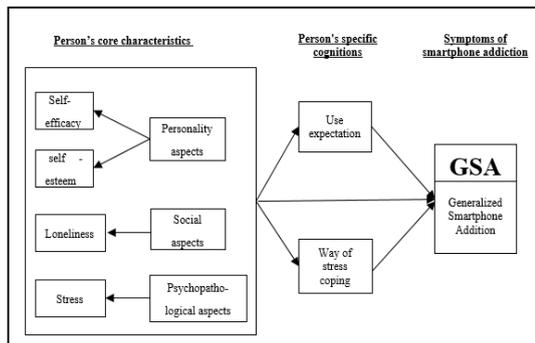


Fig. 1. The Operationalized model Including main assumptions of the Theoretical on GSA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GIA 모델에 근거하여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S대학교 재학생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을 설명하여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한 후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시 효과크기 .0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를 유지하도록 계산한 결과 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107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260부를 배부하여 응답이 불완전한 설문지 36개를 제외한 총 224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S대학교 IRB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승인번호 SYUIRB 2015-111) 2015년 10월부터 2016년부터 1월까지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측정은 Young의 온라인 중독센터[23]에서 제작한 것을 Lee 등[24]이 번안한 설문지를 스마트폰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0점에서 5점까지의 Likert 6점 척도로 총 20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20~49점은 평균 사용자, 50점~79점 중독 위험군, 80점 이상이 중독군이다. Lee 등[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2.3.2 자아존중감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Rosenberg [11]의 자아존중감 척도 SES (Self-Esteem Scale)를 Lee [25]가 수정,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9개 문항으로 1점

에서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2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2.3.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chwarzer와 Jerusalem[26]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GSS (General Self-efficacy Scale)를 Lee 등[27]이 번안한 도구를 Lee[25]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7개 문항으로 1점에서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2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2.3.4 외로움

외로움은 Russell 등[28]이 개발한 개정된 UCLA 외로움 척도 RULS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를 Kim[29]이 번안한 한국판 UCLA 외로움 척도 KRULS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를 사용하였다. 총 20개 문항으로 1점에서 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2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2.3.5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Park 과 Shin [30]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생활영역을 자신, 가정, 학업, 친구로 나누어 각 영역에서 경험하는 문제나 불만이 느껴지는 정도를 9점 척도 상에 표시하게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7$ 이다.

2.3.6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Lazarus & Folkman[14]가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Kim과 Lee[31]가 번안, 수정한 것 중 Kim[32]이 채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의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3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8$ 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1$ 이었다.

2.3.7 스마트폰 사용 기대

스마트폰 사용기대(Internet Use Expectancies)는 인터넷을 이용한 후 경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고자 Lee 등[24]이 제작한 인터넷 기대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1점에서 5점까지의 척도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가치가 큰 것을 의미한다. Lee[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스마트폰 사용실태 및 스마트폰 중독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스마트폰 중독 점수에 따른 집단 간 특성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검증을 실시하였다.
- 측정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산출하였다.
-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총 224명의 평균 나이는 22±2.2세 이었으며, 학교생활 만족도는 보통 45.5%(102명), 만족 38.8%(87명)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중위권 61.1%(137명), 거주형태는 부모님과 동거 71.4%(160명), 경제수준은 중간수준이 79.7%(181명)로 가장 많았다[Table 1].

스마트폰 사용기간은 평균 5.1±2.5년, 일평균 사용시간은 6.2±4.1시간, 월평균 사용요금은 7.5±8.6만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SNS' 29.5%(190명)이었다. 스마트폰 사용목적은 '정보검색' 44.9%(195명), '학업' 30.4%(132명), '커뮤니케이션' 21.0%(91명)등의 순이었으며 스마트폰 사용만족은 '정보획득' 36.82%(197명), '인맥형성' 28.97%(154명), '스트레스 해소' 13.46%(72명) 순이었다. 자카진단에서 '본인이 중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53.1%(119명)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24)

Variables	Categories	Mean	± SD
		n	or (%)
Age (year)		22.0	± 2.2
Gender	Male	63	(28.1)
	Female	161	(71.9)
Educational grade	1st grade	25	(11.2)
	2nd grade	51	(22.7)
	3rd grade	75	(33.5)
	4th grade	73	(32.6)
Satisfaction of school life	Very satisfied	11	(4.9)
	Satisfied	87	(38.8)
	Moderate	102	(45.6)
	Dissatisfied	17	(7.6)
School grade	Very dissatisfied	7	(3.1)
	Good	53	(23.7)
	Fair	137	(61.1)
	Poor	34	(15.2)
Residential status	With parents	160	(71.4)
	Alone	25	(11.2)
	Brothers, Relatives	11	(4.9)
Economic status	Dormitory	28	(12.5)
	Upper	8	(3.6)
	Middle	181	(79.7)
	Lower	38	(16.7)

3.2 정상군, 위험군의 스마트폰 중독정도와 측정 변수들 간의 차이 비교

분석 결과 중독군에 해당하는 학생은 4%(9명), 중독 위험군은 40.2%(90명), 일반군은 55%(125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독군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중독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총점 50점 이상인 경우를 위험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위험군은 44.2%(99명)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 정상군과 비교하여 통제력이 유의하게 낮았고($t=0.106, p<.001$), 사회적 고립 정도가 높았으며($t=47.602, p<.001$), 강박적 집착 정도가 크고($t=8.060, p=.05$), 사용은폐 정도가 크며($t=70.098, p<.001$), 심리적 의존도가 높았다($t=14.298, p<.001$).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중독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떨어지고($t=0.308, p<.05$), 외로움 정도는 높아졌다($t=5.407, p=.001$). 스트레스는 자신($t=0.195, p<.05$), 가정($t=0.139, p<.05$), 학업($t=1.290, p<.05$), 친구($t=5.276, p<.05$)를 포함한 모든 항목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는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 추구식 대처방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정서적 대처방식($t=2.102, p<.05$),

Table 2. Smartphone-related characteristics (N=224)

Variables	Categories	Mean	± SD
		n	or (%)
Smartphones period(year)		5.1	± 2.5
Smartphone using time (hour/day)		6.2	± 4.1
Smartphone use charges (10,000won/month)		7.5	± 8.6
Smartphone Using function*	SNS	190	(29.5)
	Information search	163	(25.3)
	Music, movies, videos	162	(25.0)
	Text message	58	(9.0)
	Games, entertainment	51	(7.9)
	Voice Call	21	(3.3)
	News, information retrieval	195	(44.9)
Smartphone using purpose*	Learning help	132	(30.4)
	Communication	91	(21.0)
	Latest Fashion	16	(3.7)
	Facilitate information	197	(36.8)
Satisfaction of smartphone using*	Making friends with SNS	154	(28.8)
	Relieve stress	72	(13.5)
	Monetary effects	51	(9.5)
	Absolutely necessary	46	(20.5)
	Relatively important	110	(49.1)
Smart importance	Moderate	52	(23.2)
	Some need	16	(7.1)
	Yes.	105	(46.9)
Cognition for addiction	No.	119	(53.1)

* Multiple choices

Table 3. Comparison of Variables among Normal, Risk and Addiction Group. (n=224)

Variables	Sub-area	Total (n=224)		Normal group (n=125)		Risk group (n=99)		t	p
		Mean	±SD	Mean	±SD	Mean	±SD		
Smartphone addiction	Total	2.5	±0.8	1.9	±0.4	3.2	±0.5	-20.595	<.001
	Lack of control	3.1	±1.0	2.5	±0.7	4.0	±0.7	-15.586	<.001
	Social isolation	1.8	±0.8	1.4	±0.4	2.4	±0.9	-10.872	<.001
	Compulsive obsession	2.5	±0.9	1.9	±0.5	3.3	±0.7	-17.114	.005
	Use concealment	1.7	±0.9	1.3	±0.4	2.3	±1.0	-9.293	<.001
Self-efficacy	Psychological dependence	2.3	±1.1	1.7	±0.6	3.1	±0.9	-13.999	<.001
	Total	3.6	±0.7	3.6	±0.4	3.6	±0.7	1.044	.296
Self-esteem		3.7	±0.7	3.8	±0.7	3.6	±0.6	2.490	.014
Loneliness		1.7	±0.4	1.6	±0.4	1.8	±0.5	-3.217	.002
Stress	Total	3.6	±1.3	3.4	±1.3	3.9	±1.3	-3.084	.002
	About oneself	3.8	±1.4	3.7	±1.4	4.1	±1.4	-2.202	.029
	About family	3.4	±1.6	3.1	±1.5	3.7	±1.6	-2.806	.005
	About study	4.3	±1.6	4.1	±1.6	4.6	±1.5	-2.629	.009
	About friend	3.4	±1.8	3.1	±1.9	3.6	±1.6	-2.058	.041
Stress coping	Total	3.3	±0.4	3.3	±0.4	3.4	±0.4	-1.054	.293
	Problems focused	3.5	±0.6	3.5	±0.6	3.4	±0.6	1.003	.317
	Seeking social support	3.5	±0.6	3.5	±0.6	3.5	±0.6	-.150	.881
	Emotional	2.8	±0.7	2.7	±0.7	3.0	±0.6	-2.655	.009
	Hopeful	3.6	±0.5	3.5	±0.6	3.6	±0.5	-1.346	.180
Use expectancies	Total	2.3	±0.6	2.0	±0.6	2.6	±0.6	-7.984	<.001
	Conflict resolution	2.5	±0.9	1.7	±0.7	2.5	±0.8	-7.779	<.001
	Promoting relationships	2.4	±0.8	2.1	±0.8	2.8	±0.7	-6.501	<.001
	Confidence acquired	2.4	±0.7	2.1	±0.6	2.6	±0.7	-5.775	<.001
	Information acquired	2.8	±0.8	2.6	±0.8	3.0	±0.8	-2.922	.004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224)

	Smartphon addiction	Self efficacy	Self steem	Stress	Stress coping	Use expectancies
	r (p)	r (p)	r (p)	r (p)	r (p)	r (p)
Self-efficacy	-.126 .059	1				
Self-esteem	-.244** (<.001)	.573** (<.001)	1			
Loneliness	.242** (<.001)	-.349** (<.001)	-.536** (<.001)	1		
Stress	.265** (<.001)	-.364** (<.001)	-.471** (<.001)	.353** (<.001)	1	
Stress coping	.116 .084	.367** (<.001)	.235** (<.001)	-.241** (<.001)	-.098 .144	1
Use expectancies	.632** (<.001)	-.066 .322	-.117 .080	.208** .002	.273** (<.001)	.134* .045

* p<.05, ** p<.01

소망적 대처방식($t=0.160, p<.05$)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기대는 갈등해소($t=1.427, p<.001$), 인간관계 증진($t=0.417, p<.001$), 자신감 획득($t=21.090, p<.001$), 정보화 획득($t=2.868, p<.05$) 모두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3 스마트폰 중독과 측정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스마트폰 중독과 측정변수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중독과 외로움($r=.242, p<.001$), 스트레스($r=.265, p<.001$), 스마트폰 사용기대($r=.632, p<.001$)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존중감($r=-.244, p<.001$)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스마트폰 사용기대와 스트레스($r=.273, p<.001$), 스트레스 대처방법($r=.134, p=.045$), 외로움($r=.208, p=.002$)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Smartphone Addiction

(n=224)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	14.169	11.328		1.251	.212	
Self-efficacy	-0.019	0.226	-0.005	-0.084	.933	1.661
Self-esteem	-0.429	0.195	-0.158	-2.197*	.029	1.989
Loneliness	0.086	0.112	0.048	0.769	.443	1.505
Stress	0.020	0.057	0.021	0.343	.732	1.408
Use expectancies	0.707	0.066	0.586	10.731**	<.001	1.228
Stress coping	0.143	0.090	0.090	1.590	.113	1.148

adj R^2 =.421 F=28.067, p <.001

Durbin-Waston' d = 2.038(d_n =1.816<d)

3.4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산성을 검토하였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Durbin-Waston 지수가 2.038으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이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산성은 VIF (분산팽창요인) 지수를 이용하였고, 독립변수 간 다중공산성은 VIF 지수는 1.148~1.989로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산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의 스마트폰 기대감과 자아 존중감이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스마트폰 기대감(β =.586, p <.001)이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β =-.158, p <.05)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아지며, 이들 변수가 종속변수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42.1%(adj R^2 =.421)이다. 독립변수에서 스마트폰 기대가 스마트폰 중독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적합성 검정은 잔차분석을 이용하여 정규성과 등분산을 검증하였다. 표준화된 잔차의 Kolmogorov-Smirnov 검정결과 정규성 가정(p =.330) .05)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였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GIA 모델을 근거로 하여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증재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스마트폰 이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사용기간은 평균 5.1년이었으며, 스마트폰 하루 평균 사용시간은 6.2시간이었다. 한국인터넷 진흥원[33]에 따르면

2013년 성인전체 스마트폰 사용자는 하루 평균 4.1시간을 사용하나 그 중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은 5.4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점검하면서 통제하도록 돕는 앱 등을 설치 및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등의[34] 스마트폰 사용시간 단축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기능은 SNS 29.5%(190명)로 나타났다. 한국 인터넷 진흥원[35]에 의하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주요 이용 목적이 SNS이며 사용자 본인이 SNS의 과다사용을 인식하고 있지만 조절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 대상자들의 중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학술제, 문화제 기획, 체험이나 봉사활동 등, 오프라인의 소통의 장으로 학생들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자가진단 결과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46.9%(105명)으로 대상자들이 스마트폰 과다사용의 문제점을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자기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대학생활 적응력이 높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으므로[34]대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보상적 전략, 타인의 모델링, 시간의 배분 등 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스스로 수단을 개발해 내는 최적화 전략, 바라는 것을 얻는데 최선을 두는 의도적 전략 [36]등, 성별과 학년별로 다양한 전략적 적응지원 활동 등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중독과 외로움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외로움이 클수록 휴대전화와 같은 매체를 과다 사용하거나 중독이 된다는 Jang 등[37]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불안족스러운 사람일수록 사회적 소속감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스마트

폰을 많이 사용한다는 Juhn과 Jang[38]의 결과와도 연관성을 보인다. 스마트폰 중독과 스트레스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선행연구[37,38,40]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중독의 위험성이 높아지며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울이나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들을 조기 선별하고 건전한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안의 모색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방안들이 요구[38]된다. 스마트폰 중독과 스마트폰 사용기대($r=.632, p<.001$)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Lee[24]에 의하면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증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욕구 충족이나 갈등해소의 목적으로 스마트폰에 거는 기대가 클수록 스마트폰 중독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이 일탈 행동이나 현실 도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호회나 학습 활용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면서 동시에 현실세계의 활동을 병행해 나가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스마트폰 기대감($\beta=.586, p<.001$), 자아 존중감($\beta=-.158, p<.05$)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중독 전체 변량의 42.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에 대한 상대적인 설명력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기대감과 자아 존중감이 스마트폰 관련 변인 중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작용했다. 이는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관련 변인들을 연구한 Shim[39]의 연구에서 변인들 중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영향요인은 인터넷 기대였고, 그 다음은 자아 존중감 이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Lee [24]등의 선행연구 결과를 스마트폰에 적용시켜본다면 현실에서의 욕구나 갈등 해소라는 기대를 가지고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스마트폰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현실을 회피하게 만듦으로써 중독에 빠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갈등 해소를 포함한 스마트폰 기대를 낮추고 현실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선행연구[41]에서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아 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 시각으로서, 희망과 성장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을 바람직하게 느끼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인간관계와 더불어 양호한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42,43,44]. 따라서 높은 자아 존중감 수준은 스마트폰 중독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으로 대학생의 높은 자아 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집단 상담프로그램[45], 예술심리 치료[46], 애니어그램 집단상담[47], 독서치료를 통한 사회통합 인성프로그램 [48], 마음공부 프로그램[49], 등이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관련하여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GIA 모델에 근거한 다양한 요인을 중심으로 서술적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로움,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스마트폰 기대감으로 나타났다. 외로움과 스트레스는 대학생들의 적응력을 떨어뜨려 스마트폰의 사용기대를 높이고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므로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자아존중감의 저하와 스마트폰 사용기대 또한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요인이 되므로 대상자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미래를 지시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며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GIA 모델을 근거로 스마트폰 중독 영향요인을 파악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 증세 및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GIA 모델의 연구 적용 및 활용성을 제시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GIA 모델을 근거로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조절하기 위한 영향요인별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자가 편의표집으로 서울지역 4년제 대

학 한곳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중독군이 4%밖에 되지 않아 충분한 GIA 모델 검증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스마트폰 중독군을 대상으로 GIA 모델의 검증 및 구조방정식 모델 구축, 스마트폰 중독의 조절요인과 매개요인 중재를 통한 비교연구, 스마트폰 순기능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등에 관한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B. N. Kim, E. J. Ko, H. I. Choi,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addiction in university students : A focus on differences in classifying risk groups", *Studies on Korean Youth*, Vol.24, No.3, pp.67-98, 2013.
- [2] E. Y. Kim, S. H. Kim, "Pattern Study on smartphone addiction group",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2 pp.1207-1215,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2.1207>
- [3] M. J. Kim, Y. E. Yeom, J. E. Jeon, H. J. Cho, H. M. Gye, K. H. Kim, E. J. Nam, J. Y. Park,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xiety, and Quality of Sleep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Nursing Academic Association of Ewha*, Vol. 48, pp.99-112, 2014.
- [4] "Internet Addiction Survey",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5.
- [5] Y. K. Kim,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on stress, internet addiction and gambling behavior amongst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Vol.24, No.1, pp.127~156, 2013.
- [6] E. Y. Kim, R. W. Park, "Smartphone Addiction and Learning disorder, Depression, ADHD associ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11 pp.7599-7606, 2015.
- [7] L. C. Mullins, R. Tucker, C. F. Longino, V. Marshall, "An Examination of Loneliness Among Elderly Canadian Seasonal Residents in Florida", *Journal of Gerontology*, Vol.44, No.2, pp.80-86, 1989.
DOI: <http://dx.doi.org/10.1093/geronj/44.2.S80>
- [8] D. J. Kuss, M. D. Griffiths,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Addiction—A Review of the Psychologic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8, pp.3528-3552, 2011.
DOI: <http://dx.doi.org/10.3390/ijerph8093528>
- [9] J. Hinojosa, M. L. Blount, "Occupation, purposeful activities, and occupational therapy.", *The texture of life: Purposeful activities in context of occupation* 3rded, pp.1-19, 2009.
- [10] M. H. Ryu, "University Students' Smartphone Addiction Propensities according to Self-efficacy and Leisure-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2, No.1, pp.63-79. 2014.
DOI: <http://dx.doi.org/10.7466/JKHMA.2014.32.1.63>
- [11]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12] K. S. Young, R. C. Rogers,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pathological internet Addiction",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Vol.1, No.1 pp.25-28, 1998.
DOI: <http://dx.doi.org/10.1089/cpb.1998.1.25>
- [13] R. S. Lazarus, S. Folkman, "Coping and adaption", *The Handbook of Behavioral Medicine*, pp.285-325. 1984.
- [14] N. S. Kim, K. E. Lee, "Effects of Self-control and Life Stress on Smart phone Addic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37, No.2, pp.72-83, 2012.
- [15] A. Bandur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New-York; Prentice-Hall, 1986.
- [16] R. A. Davis,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Comput. Human Behav*, Vol.17, pp.187 - 195, 2001.
DOI: [http://dx.doi.org/10.1016/S0747-5632\(00\)00041-8](http://dx.doi.org/10.1016/S0747-5632(00)00041-8)
- [17] M. Brand, K. S. Young, C. Laier, "Prefrontal Control and Internet Addiction: A Theoretical Model and Review of Neuropsychological and Neuroimaging Findings",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 Vol.8. pp.1-13, 2014.
DOI: <http://dx.doi.org/10.3389/fnhum.2014.00375>
- [18] P. Trotzke, K. Starcke, A. Müller, M. Brand "Pathological Buying Online as a Specific Form of Internet Addiction: A Model-Based Experimental Investigation", *PLOS one*, Vol.10, No.10, pp.53-77. 2015.
DOI: <http://dx.doi.org/10.1371/journal.pone.0140296>
- [19] M. Brand, C. Laier, K. S. Young, "Internet addiction: coping styles, expectancies, and treatment implications", *Frontiers in Psychology*, Vol.5, pp1-14, 2014.
DOI: <http://dx.doi.org/10.3389/fpsyg.2014.01256>
- [20] L. S. Whang, S. Lee, Chang, "Internet over-users' psychological profiles: a behavior sampling analysis on internet addiction", *Cyberpsychol Behav*. Vol.6, No.2, pp.143-50. 2003.
DOI: <http://dx.doi.org/10.1089/109493103321640338>
- [21] C. K. Yang, B. M. Choe, J. H. Lee, J. S. Cho, "SCL-90-R and 16PF profiles of senior high school students with excessive internet use", *Can J Psychiatry*, Vol.50, No.7, pp.407-414, 2005.
- [22] A. Weinstein, M. Lejoyeux, "Internet addition excessive internet use".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Vol.36, No.5, pp. 277-283, 2010.
- [23] K. S. Young,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Vol.1, No.3, pp.237-244, 1996.
DOI: <http://dx.doi.org/10.1089/cpb.1998.1.237>
- [24] S. H. Lee, S. Y. Lee, E. J. Kim, S. Y. Oh, "Internet addiction and parenting youth", *Samsung Life Public Foundation Community Mental Health Institute Reports*, 2000-1.
- [25] C. S. Lee, "a Structur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Youth Leadership Skill", Unpublished Ph. D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2005.
- [26] R. Schwarzer, M. Jerusalem, "Interaction of employment status and self-efficacy on alcohol consumption: A two-wave study on stressful life transitions",

- Psychology & Health, Vol.8, pp.77-87, 1993.
DOI: <http://dx.doi.org/10.1080/08870449308403168>
- [27] Y. M. Lee, R. Schwarzer, M. Jerusalem, "Korean adaptation of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Retrieved September 2, 1994.
- [28] D. Russel, L. A. Peplau, C. E. Cutrona, "The receiv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39, pp.472-488, 1980.
- [29] O. S. Kim,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27, No.4, pp.871-879, 1997.
- [30] G. B. Park, M. S. Shin, "Perceived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10, No.1, pp.298-314, 1991.
<http://www.riss.kr/link?id=A100627771>
- [31] J. H. Kim, J. H. Lee, "Configuration factors and the relationship of coping with depression", Behavioral Science Research Vol. 7, pp.127-138, 1985.
- [32] J. M. Kim, "(The) Effect of Insecure Attachment on Psychological Well-being : the Roles of Automatic thoughts, Mood Awarenes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tress coping strategy as Mediators", Unpublished PhD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2010.
- [33] "Internet Addiction Survey",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3.
- [34] S. J. Ju, "The Effects of Smart Phone Addiction on University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 Control", The research for korean youth, Vol.42, pp.98-127, 2015.
- [35] "Internet Addiction Survey",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2.
- [36] J. I. Yu, S. L.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Adjustment and SOC Strategies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0 No.4, pp.1211-1225, 2008.
- [37] S. h. Jang, Y. J. Park, "The Relations among Teenagers' Mental Health, Self-Control, and Self-Esteem according to their Mobile Phone Addiction",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Forum, Vol.8, No.3, pp.25-41, 2010.
- [38] H. S. Jeon, O. Jang, "A Study on the Influence of Depression and Stress on Smartphone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Gende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1, No.8, pp.103-129, 2014.
- [39] O. R. Shim, "Investigation into variables which affect college students' Internet addiction" Unpublished PhD thesis, Kangwon University, Chunchen, 2010.
- [40] S. I. Ryu, I. S. Cho,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Addiction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9 pp.6180-6189,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9.6180>
- [41] S. H. Jang, Y. J. Park, "The relations among teenagers' mental health, self-control, and self-esteem according to the mobile phone addition", The Journal of Education Forum(in Korean), Vol.8, No.3, pp.25-41, 2010.
- [42] H. I. Lee, "Correlations among Self-Esteem, Depres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22, No.1, pp.97-10, 2008.
- [43] E. Y. Yu, C. K. Yoon, Y. J. Ya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 in Some Region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3, No.1 pp.274-283, 2012.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2.13.1.274>
- [44] J. S. Lee, D. J. An, "Influence of Adolescent's Self-Esteem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n Life Satisfaction : Moderating Effect of Positive Self-Evaluation and Negative Self-Evalu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10 pp.6595-6603,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0.6595>
- [45] J. H. Kim, "Development of a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Internet Addictio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PhD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2010.
- [46] J. Y. Se, S. H. Won, "A Case Study of Arts psychotherapy on Improving a Female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Vol.7, No.1 pp.19-43, 2011.
- [47] H. J. Whang, S. L. Yu, "Effects of Enneagram Group Counseling on College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 skills and Self-Esteem", Research Review, Vol.33, 2004.
- [48] Y. S. Kim, "The Effects of Reading Therapy-based Social Integration Personality Program on College Students' Self-esteem and Social Sense of Distanc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Vol.51, No.1, pp.1-23, 2012.
- [49] G. S. Ahn, S. I. Kim, H. K. baek, "The Effects of Maeum Gongbu Program (Mind Practice Program) o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f the University Students" Won-Buddhist Thought & Religious Culture, Vol.45, 2010.

임 영 숙(Young-Sook Lim)

[정회원]



- 1990년 2월 ~ 1994년 4월 :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 1994년 5월 ~ 2002년 2월 : 삼성 서울병원 간호과장, 삼성 서비스 아카데미 강사
- 2005년 2월 ~ 2011년 8월 : 배스 트맘 교육 과장
- 2015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대학원 석사과정)

<관심분야>

모성간호, 여성건강, 간호교육

이 영 주(Young-Joo Lee)

[정회원]



- 2016년 4월 ~ 2016년 6월 : 삼육대학교 석사1학기 과정
- 2014년 9월 ~ 2015년 3월 : 영신간호비즈니스 고등학교 교사
- 2010년 6월 ~ 현재 : 본 간호학원 강사
- 2015년 8월 ~ 현재 : YWCA노원 여성인력 개발센터 강사

<관심분야>

간호교육, 건강증진

한 숙 정(Suk-Jung Han)

[정회원]



- 1992년 8월 : 고려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3년 2월 :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1988년 3월 ~ 1998년 2월 : 인제대학교 부속 서울백병원 간호사
- 1999년 9월 ~ 현재 :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노인보건, 가정간호, 건강증진